

신년 축하메시지



존경하는 회원사 및 애독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아 회원사 여러분과 애독자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고분양가 논란과 원가 공개 논란, 지방 분양 시장 위축 등으로 주택 사업이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또 새로운 희망으로 건설산업이 더욱 큰 발전을 이루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저 또한 새로운 각오로 주택 경기의 활력을 회복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국주택협회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2007년을 보다 힘차게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사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경조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 코오롱건설 부회장

희망찬 2007년 丁亥年 새해가 열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우스 앤 피플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 그리고 주택협회 회원사 여러분,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6년은 우리 건설업체가 한 해 동안 각종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사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으로 丙戌年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丁亥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역시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유가, 원화 가치 상승 등 기업 경영의 대외적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기 때문입니다.

회원사 여러분! 바야흐로 21세기에는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 있는 마스터플랜을 지닌 기업만이 살아남는 산업구조로 진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올바른 기업문화를 창출하는 선진화된 주택업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사 여러분들께서 각 사마다 시공 능력 향상은 물론 환경친화 경영과 윤리경영에 더욱 주력하여 밝고 깨끗한 주택업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여러분.

용기와 신념을 갖고 어려움에 철저히 대비해 무한한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 훈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 금호산업 부회장

